

몸 덜 풀렸나... 코리안 빅리거들 주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초반 부진 속 아쉬운 성적표 김광현 2경기 평균자책점 21.00... 김하성 타율 0.154

한국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초반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내고 있다.

올 시즌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은 물론, 지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투수 김광현도 출발은 좋지 않다.

두 차레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는 4일 뉴욕 메츠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⅔이닝 동안 피안타 4개, 볼넷 2개를 내주며 4실점(3자책점)으

로 부진했다.

9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범경기에서 2⅓이닝 6피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난타당했다.

김광현은 두 경기 모두 1회 선발 등판했다가 강판당한 뒤 2회 다시 등판하는 '한 경기 두 번 등판'을 하기도 했다. 김광현의 올 시즌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21.00이다. 피안타율은 0.556이다.

김광현은 지난해 5차례 시범경기에서 등판해 9이닝 동안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았고 피안타율은 0.156에 불과했다.

류현진은 지난 6일 볼티모어 오리

올스와 시범경기에서 2이닝 1피안타(1홈런)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다만 류현진은 매년 시범경기 초반 전력으로 던지지 않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김하성은 6차례 시범경기에서 13타수 2안타 1볼넷 타율 0.154를 기록 중이다. 우려대로 메이저리거 투수들의 강속구에 고전하고 있다.

다만 시범경기 초반 성적에 김하성의 정규시즌 출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샌디에이고 A.J 프렐러 단장은 시범경기를 앞두고 "누구나 적응과정이 필요하다"며 김하성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김하성은 MLB 강속구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적응과정을 거치면 MLB에 안

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빅리그와 마이너리그의 갈림길에 서 있는 양현종도 시범경기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그는 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범경기 8회에 등판해 1이닝 2피안타(1홈런) 1실점 했다.

현지 매체들은 양현종이 볼펜투수로 개막 엔트리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시범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은 한국 출신의 빅리거 중 가장 출발이 좋다.

그는 시범경기 3경기에서 6타수 3안타 3득점 타율 0.500, OPS(출루율+장타율) 1.333으로 맹활약 중이다.

최지만은 예년처럼 봄부터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NLCS제주 김동혁, 펜싱 국대 발탁

3위로 세계대회 티켓 확보 "꾸준히 공부·연습 병행했다"

NLCS제주(노스런던컬리지이스를 제주) 10학년 김동혁(알레펜싱클럽·사진)이 국내 국제학교 학생 중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NLCS 제주 알레펜싱클럽은 지난 6-7월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 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동혁이 3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선발 및 세계 유소년 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9일 밝혔다.



김동혁은 지난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미국 국제 펜싱연맹 International Regional Circuit에서 열린 14세 이하부 개인전 1위, 캐나다 내셔널에서 개인전 2위, 홍콩 14세 미만 펜싱 페스티벌에서 개인전 2위, 미국에서 열린 페어팩스 캘리포니아에서도 개인전 2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김동혁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때 처음 펜싱을 접해 펜싱에 관심을 갖게 돼 이후 꾸준히 연습하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다"면서 "집중력을

갖고 오랜 시간 꾸준히 해 좋은 결과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준석 NLCS 제주 알레펜싱클럽 감독은 "매일 훈련하는 국내에 엘리트 선수들에 비해 훈련량이 적지만 짧은 훈련 시간 속에서 최대한의 훈련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매일 공부하듯 분석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이번 대회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혁은 4월 3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세계 유소년 펜싱 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한다. [오른기사자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PGA 플레이어스가 돌아온다

11일 개막... 매길로이 방어진 한국 임성재·강성훈 등 출격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1라운드 운드를 치른 뒤 전격 취소됐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돌아온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 챔피언십 등 4대 메이저대회 못지않은 권위를 자랑해 '제5의 메이저'로 불린다.

총상금이 1500만 달러(약 171억원)로, US오픈(1250만 달러), 마스터스(1050만 달러)보다도 많은 시즌 최고 상금 대회이기도 하다.

지난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PGA 투어에 '코로나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올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7189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2년 전 챔피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다시 타이틀 방어진에 나선다. 매길로이는 지난해 1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로 공동 83위에 머물러 타이틀 방어의 첫발을 무겁게 뒀는데, 당시 대회가 취소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그는 지난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

셔널에서는 상위권 경쟁을 펼쳤으나 마지막 날 4타를 잃고 고전하며 공동 10위(3언더파 285타)로 마쳤다.

브라이언 디샬보(미국)의 2연승 도전도 주목된다. '괴력의 장타'를 앞세운 디샬보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지난해 9월 US오픈에 이어 2020-2021시즌 두 번째 우승을 수확, 이번 시즌 첫 '다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페덱스컵 랭킹도 1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대회에 나선다.

역대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최경주(51), 2017년 김시우(26)가 정상에 오른 바 있는데, 이 중엔 김시우가 올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부상으로 이어진 부진을 떨치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으나 대회 취소로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김시우로선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후 또 한 번 정상의 문을 두드릴 기회다.

김시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이후엔 5개 대회 중 세 차례 컷 탈락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임성재(23·세계랭킹 17위)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훈(30), 강성훈(34), 이경훈(30), 교포 선수 케빈 나, 더그 김, 제임스 한(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 등도 나선다.



이 공은 내꺼야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에버턴과 첼시의 2020-2021 EPL 27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턴의 앨런과 첼시의 하버츠가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날 첼시는 에버턴을 2-0으로 꺾고 9경기 무패행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페더러·나달 덕에 가능했다"

311주간 세계 1위 신기록 "빅3 경쟁이 동력 만들어"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역대 최장 311주 동안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 1위에 군림하는 신기록을 쓴 동력으로 '빅3' 간의 경쟁을 꼽았다.

조코비치는 9일(한국시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로저 페더러(6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2003년 프로로 데뷔해 2008년 호주오픈에서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그때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다. 페더러, 나달과 경쟁해 메이저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 조코비치는 페더러, 나달과의 큰 경기에서 대부분 졌다. 그가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3년이나 지난

2011년 호주오픈에서였다. 그해 조코비치는 Wimbledon과 US오픈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조코비치는 이 '3년'을 '배움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은 내가 그들을 이기려면 뭘 보완해야 할지, 뭘 발전시켜야 할지 깨닫도록 했다"면서 "그들과의 경쟁이 있었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뒤에도 페더러, 나달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조코비치는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통산 18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311주 동안 랭킹 1위를 지켰다. 이전 최고 기록은 페더러의 310주였다.

조코비치는 이제 2차례 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페더러, 나달(이상 20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조코비치는 "이제 23살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메이저 대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일정을 잘 짜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경 8:25 아침매일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슈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길에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안녕? 나야!(재) 11:50 통합뉴스룸 ET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뽀빠뽀빠 친구구 스페셜 13: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여행 길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종로이집 10:10 SBS 뉴스 10:30 삼시세끼는 오늘 11:00 에나멜리 11:30 에나멜리 런닝맨 스페셜 11:45 헬로카봇 10 병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유치원 8:45 워킹킹 리턴즈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4:45 도라다과 영아나라 16:15 울리 앤 룬 16:30 뽀뽀뽀 유치원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 하나 19:30 자이언티 뽀TV 22:45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백투더유지 13:50 한국의 인류유산 13:55 풀뿌리도 관찰자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열린채널 15:10 역사저널 그날(재) 16:00 사사간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안녕? 나야!(재) 13:20 영성앨범 산(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재) 17: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17:30 골전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뽀빠뽀빠 친구구 스페셜 13: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나의 판타지(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월드컵산 GoGo(재)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7:50 5 MBC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길거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KCTV 뉴스 9:00 그대항해 김석임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의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태의 뉴스텔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광점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안녕? 나야! 22:10 안녕? 나야! 22:40 특선영화 <종이비행>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쓰리박 스페셜 22:20 라디오스타 1부 23:20 라디오스타 2부	18:50 전국 TOP10 가요쇼(재)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나의 판타지 1부 21:50 나의 판타지 2부 22:20 라디오스타 1부 23:2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30 제주 청순년 리포터 9:00 KCTV 뉴스 10:30 세계의 99인상 11:30 꽃차와 생방송을 품다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KCTV 다류스페셜 14:30 제주 청순년 리포터 15:2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6:10 KCTV 다류스페셜 19:00 KCTV 뉴스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삼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48년 부하직업에게 존경을 받거나 동료의 인정을 한다. 60년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답답함을 해소하라. 72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 84년 등산이나 여행 또는 낚시를 즐기도록 한다.

37년 외출 또는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49년 한약재료·건어물·수산물 총사자는 손님 방문이 따르니 경리 정돈을 하라. 61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잠깐은 자제하고 가지말 것. 73년 새롭게 미래 설계.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85년 내가 머뭇거리기 아담답도록 킷마루리를 잘 해야 한다.

38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예가 따른다. 50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62년 마음, 어깨가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39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51년 애매한 행방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63년 외도에 모양을 내거나 급전 지출이 따른다. 75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 87년 기회가 자주오지 않듯이 결단이 오늘을 필요하다.

40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곱지 않다. 52년 중상모략 또는 배신이 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4년 작은 아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76년 유통업·미용·피부·의류업종 이익이 증가 또는 매매 등 이익이 생기기도. 88년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및 기술 습득.

41년 사업 수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3년 가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5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자식이나 부하직원에 의한 문제 발생. 77년 직장 또는 예정에서 회소식이 오거나 맛을 낸다. 89년 기나긴 시간이 나에게서 소중하니 초심을 잃지말 것.

42년 학원이나 지연이 필요하고 단합하게 된다. 54년 기획 또는 통계분야는 일이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갈등이 다가오니 오늘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78년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는다. 90년 친구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대환의 즐거움이 있다.

43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급한 성격은 불리. 55년 동업 또는 창업에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67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은 원만하고 계약이 증가. 79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조기 귀가. 과음을 피하라. 91년 많은 사람들과 친목, 단합을 하라.

44년 주변과 융화, 단합을 하게 되며 즐거움이 따른다. 56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68년 하고자 하는 일에 결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0년 내그르움이 상대를 편안하고 유머가 필요하다. 9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45년 하던 일에 변화가 오거나 변동을 주고 싶어 한다. 57년 약속 만반이 이뤄지거나 여행갈 일이 생긴다. 69년 과음은 불리하니 적당히. 대중교통 이용. 81년 미혼자는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한다. 93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몰려오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46년 투자자 제테크는 전문가와 상의하면 일이 풀려나간다. 58년 재물 지출이 마르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니 금전에 신경을 쓸 것. 70년 직업이나 업무의 변화 변동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직업, 가정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미혼자는 결혼문제로 고민. 94년 말은 일을 잘 하나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47년 배우자 또는 상대와 인성 조성. 아침부터 인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59년 교육, 펀드, 설계사에게는 몸이 분주, 활동 증가. 71년 이미지관리업에 인기가 잘 오고 수입 증가. 83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 고생이 있는 날. 95년 감정적 기복으로 대하면 아랫사람과 불화하니 마음을 넓게.